

고등학생들의 흡연과 음주의 관련성 및 영향요인

이 정 란* · 박 복 남* · 양 경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체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심리성향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Kim, 1998).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은 발달과정에 적응해 가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고학력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와 부모의 기대를 받게 된다. 이로써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 과다한 경쟁심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Shin, 1998),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음주나 흡연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Lim & Kim, 2000).

최근 몇 년간 청소년 흡연예방과 사회적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어 1997년과 1999년을 기점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을 감소가 꾸준히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 남학생의 흡연율은 32.6%로 인문계의 흡연율 13%에 비해 약 2.5배 높고, 실업계 여학생의 흡연율은 12.5%로 인문계 4.2%에 비해 약 3배 높은 실정이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3).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에 의하면 1999년의 고등학생의 음주경험은 60.2%에서 계속 증가하여 70.5%에 이르며, 현재 음주를 하는 고등학생은 인문계 33.5%, 실업계 50.5%로 실

업계가 1.5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2).

청소년기는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배나 술에 노출되었을 때 성인에 비해 세포나 조직에 손상정도가 훨씬 크므로(Kang, 2001; Shisslak & Crago, 1992),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기 건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은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으므로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하는 등 인격장애, 정서장애 및 비행·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Kim, 2001; Ryu, 2001). 선행연구에서(Yang, Kim, & Lee, 2005)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은 음주학생이 68배, 부모가 없는 학생은 10배, 물질적 지지가 많은 경우는 5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흡연과 음주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구이며(Hong, 1992),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상자가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호책임을 갖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 준다(Cobb, 1976).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 등과 같은 사회 조직망 속에서 존재하면서 정서, 애정, 정보 등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교신처자 이정란 E-mail: lljrr@hanmail.net)

**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되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심리적인 변수 중에서 사회적지지가 음주 및 흡연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Elder et al., 2000; Schraedley, Gotlib, & Hayward, 1999; Yang et al., 2005). 중·고등학생의 흡연, 음주상태에 대한 다수의 조사 연구들이 있지만 고등학생의 흡연, 음주간의 관련성 및 흡연,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건강위험 요인인 음주, 흡연행위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행위를 줄이고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흡연 및 음주상태를 조사하고 그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들의 음주 및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3)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음주 및 흡연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들의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사회적지지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Cobb, 1976)이다. 본 연구에서는 Tak과 Lee(1997)가 번역한 도구로 질문지는 정서적 지지(친밀감), 사회 통합적 지지, 양육지지, 자아개념지지, 지도와 정보지지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흡연 및 음주상태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중소도시에 위치한 남·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4개교에서 각 3반씩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369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Brant와 Weinert(1987)가 개발한 PRQ(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part II를 Tak과 Lee(1997)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역한 도구로 총 25문항이다. 질문지는 정서적 지지(친밀감), 사회통합적 지지, 양육지지, 가치지지, 지도와 정보지지 등 총 5가지 영역으로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저 25점에서 최고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ak과 Lee(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 음주

본 연구에서는 음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한달 동안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음주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달 동안 마신 술의 평균 단위(drink)를 사정하였다. 1 drink는 맥주 1병, 포도주 1잔, 소주나 막걸리 1잔과 동동주 1잔등이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이 양이 같으므로(약14mg) 동일한 1단위로 고려하였다.

3) 흡연

본 연구에서 흡연은 현재 흡연여부와 지난 한달 동안 피운 평균 담배 개피수를 측정하였으며, 금연시도 여부를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또는 연구대상 학교의 보건교사가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숙지하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여 학생들 자신이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100%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361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 3) 두 집단간의 사회적 지지는 t-test, 음주 및 흡연 정도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들의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중소도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인문계 182명(남 86명, 여 96명), 실업계 179명(남 85명, 여 94명), 학년별로는 1학년 113명, 2학년 121명, 3학년 127명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인문계 121명(66.5%)·실업계 98명(87.7%)이었으며($\chi^2=5.21$, $p=.022$), 대부분이 친부모였다(95.1%, 87.2%, $\chi^2=6.98$, $p=.008$). 용돈이 6만원이상은 인문계 44명(24.1%), 실업계 24명(13.4%)이었으며($\chi^2=6.84$, $p=.009$),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가정형편은 중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인문계 154명(84.6%), 실업계 110명(61.5%)이었다($\chi^2=24.64$, $p=.000$)<Table 1>.

2. 대상자들의 음주, 흡연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음주경험은 인문계 52명(28.6%), 실업계 78명(43.6%)으로 나타났으며, 금주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25.0%와 34.6%였다. 음주하는 학생의 한달 평균 음주량에 대해 인문계의 경우 평균 13.8잔이었으며, 실업계는 11.0잔으로 나타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61)

Characteristics	Category	Preparatory(n=182) N(%)	Vocational(n=179) N(%)	Total N(%)	χ^2	p
Gender	Male	86(47.3)	85(47.5)	171(47.4)	.002	.965
	Female	96(52.7)	94(52.5)	190(52.6)		
Grade	1st	58(31.9)	55(30.8)	113(31.3)	.200	.905
	2nd	59(32.4)	62(34.6)	121(33.5)		
	3rd	65(35.7)	62(34.6)	127(35.2)		
Religion	Yes	121(66.5)	98(87.7)	219(60.7)	5.21	.022*
	No	61(33.5)	81(45.3)	142(39.3)		
Existence of Parent	Both	173(95.1)	156(87.2)	329(91.1)	6.98	.008*
	One or none	9(4.9)	23(12.8)	32(8.9)		
Mother's occupation	Yes	100(54.9)	105(58.7)	205(56.8)	.13	.721
	No	82(45.1)	74(41.3)	156(43.2)		
Perception of family economic state	Above Middle	154(84.6)	110(61.5)	264(73.1)	24.64	.000***
	Below middle	28(15.4)	69(38.5)	97(26.9)		
Pocket money	≤60,000	138(75.9)	155(86.6)	293(80.9)	6.84	.009*
	>60,000	44(24.1)	24(13.4)	68(18.8)		
School life	Satisfied	155(85.2)	144(80.4)	298(82.8)	1.41	.235
	Dissatisfied	27(14.8)	35(19.6)	62(17.2)		
Relationship with teacher	Satisfied	161(78.5)	158(88.3)	319(88.4)	.003	.954
	Dissatisfied	21(11.5)	21(11.7)	42(11.6)		
School record	1-19	114(62.6)	128(71.5)	242(67.0)	3.21	.073
	20-40	68(37.4)	51(28.5)	119(33.0)		

*p<0.05, **P<0.01, ***P<0.001

〈Table 2〉 Characteristics of drinking and smoking between preparato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N=361)

Characteristics	Category	Preparatory(n=182)		Vocational(n=179)	
		N(%)	Mean±SD	N(%)	Mean±SD
Current drinking	Yes	52 (28.6)		78 (43.6)	
	No	130 (71.4)		101 (56.4)	
Drinking amount			13.8±18.25		11.0±14.24
Tried to stop drinking	Yes	13 (25.0)		27 (34.6)	
	No	39 (75.0)		51 (65.4)	
Family's drinking	Yes	150 (82.4)		157 (87.7)	
	No	32 (17.6)		22 (12.3)	
Current smoking	Yes	5 (2.7)		18 (10.1)	
	No	177 (97.3)		161 (89.9)	
Smoking amount			3.2±.44		5.2±3.52
Tried to stop smoking	Yes	3 (60.0)		14 (77.8)	
	No	2 (40.0)		4 (22.2)	
Family's smoking	Yes	92 (50.5)		106 (59.2)	
	No	90 (49.5)		73 (40.8)	

다.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는 인문계 5명(2.7%), 실업계 18명(10.1%)이었고 한달 평균 흡연량은 3.2개비, 5.2개비로 실업계에서 높았다. 가족내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인문계와 실업계 각각 92명(50.5%), 106명(59.2%)이었고, 가족내 음주자가 있는 경우는 150명(82.4%), 157명(87.7%)으로 실업계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음주 및 흡연정도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 5개 영역 중 정서적지지($t=2.91, p=.004$), 사회통합적지지($t=2.69, p=.008$), 가치지지($t=3.25, p=.001$), 지도와 정보지지($t=2.49, p=.013$)는 인문계 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았으

나 양육적지지($t=1.83, p=.069$)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p=.003$)와 흡연($p=.004$)은 실업계 학생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또한 대상자들의 흡연여부에 따른 사회적지지($t=.23, p=.821$)와 음주경험에 따른 사회적지지($t=-.14, p=.890$)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according to smoking & drinking of high school student (N=361)

		Social support		
		Mean±SD	t	p
Smoking	Yes	4.96±.83	.23	.821
	No	4.98±.85		
Drinking	Yes	4.99±.85	-.14	.890
	No	4.97±.84		

〈Table 3〉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drinking, smoking between preparato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N=361)

Variables		Preparatory(n=182)		Vocational(n=179)		t(x ²)	p
		n	Mean±SD	n	Mean±SD		
Social support	Intimacy		5.43±1.07		5.11±1.11	2.91	.004**
	Social integration		5.07±.99		4.80±.98	2.69	.008**
	Nurturance		4.74±.88		4.57±.92	1.83	.069
	Worth		4.90±.89		4.61±.86	3.25	.001**
	Assistance/guidance		5.41±1.03		5.14±1.02	2.49	.013*
	Total			5.12±.84		4.85±.83	3.12
Drinking	Yes	52		78			.003**
Smoking	Yes	5		18			.004**

*p<0.05, **p<0.01

4.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Odds ratio를 산출하였다(Table 5).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현재 흡연여부와 음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일반적 특성과 음주, 흡연 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분화 하였고, 산출한 Odds ratio(OR)는 95% 신뢰수준으로 분석하였다. 흡연에 대해 $-2 \log \text{likelihood}$ 는 171.16이었고, predicted correct는 95.6%이었다. 흡연의 chi-test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은 $\chi^2=84.02$, $p=0.000$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음주(OR=15.86, $p<0.01$), 학교유형(OR=11.82, $p<0.01$), 학교 성적(OR=46.62, $p<0.001$), 용돈(OR=10.91, $p<0.01$), 형제흡연(OR=9.09, $p<0.05$)이었다.

음주 경험에 대해 $-2 \log \text{likelihood}$ 는 469.77이었고, predicted correct는 71.4%이었다. 음주 경험의 chi-test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은 $\chi^2=71.62$, $p=0.000$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음주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흡연(OR=8.32, $p<0.01$), 학교유형(OR=2.53, $p<0.01$), 학교 성적(OR=2.35, $p<0.01$), 용돈(OR=2.01, $p<0.05$), 아버지 학력(OR=2.13, $p<0.05$), 어머니의 음주(OR=1.83, $p<0.05$), 교사와의 관계(OR=2.44, $p<0.01$)이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조사 결과 인문계의 2.7%가 평균 3.2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실업계의 경우는 10.1%가 평균 5.2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3)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인문계 13.4%, 실업계 22.5%보다 낮았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4)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인문계보다 실업계에서 높다는 것과 일치된다. Shin, Lee와 Park(2000)과 Lee, Kang, Lee와 Lee(2001)의 선행연구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흡연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 대상학교에서도 2000년 이후 강화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교실의 운영으로 흡연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음주경험의 경우는 인문계가 28.6%, 실업계가 43.6%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33.5%, 실업계 고등학생의 50.5%(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2)와 Bang(2002)의 70.6%(인문계), 83.7%(실업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Lee(2003)의 연구(인문계 13.7%, 실업계 2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문계보다 실업계에서 음주 경험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업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인 인식도 낮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거나, 학교환경 적응, 학업성취도,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흡연과 음주 등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보건교육 중 흡연과 음주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지도 관리가 선행되어

<Table 5>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plain smoking, drinking (N=36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moking(0: yes, 1: no)		Drinking(0: yes, 1: no)	
	OR	95% CI ⁽¹⁾	OR	95% CI ⁽¹⁾
Drinking(0: yes, 1: no)	15.86**	3.14 - 80.16		
Smoking(0: yes, 1: no)			8.32**	2.20-31.43
School type(0: vocational high school, 1: preparatory high school)	11.82**	2.13 - 65.67	2.53**	1.45- 4.43
Pocket money(0: 60,001 or more 1: less than 60,000)	10.91**	2.29 - 52.10	2.01*	1.06- 3.81
School record (0: more 20, 1: 1-19)	46.62***	7.73 -281.06	2.35**	1.37- 4.01
Farther's education level(0: college or more 1: less than high school)	0.29	0.042- 24	2.13*	1.13- 4.01
Mother's drinking (0: yes, 1: no)	1.08	0.43 - 2.68	1.83*	1.06- 3.18
Relationship with teacher(0: dissatisfied, 1:satisfied)	1.35	0.26 - 6.92	2.44*	1.13- 5.30
Brother's smoking(0: yes, 1: no)	9.09*	1.24 - 66.54	1.41	0.58- 3.44

* p<0.05 **p<0.01 ***p<0.001 (1) 95% confidence intervals

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주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Elder 등(2000)이 사회적지지의 만족도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취약성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한 연구와 Denton과 Walters(1999)의 사회적 지지와 음주와 흡연, 운동과 영양과 같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라고 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중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Yang et al., 2005),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의 강화로 사회적 지지가 흡연과 음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생들의 흡연에는 부진한 학교 성적 47배, 음주 16배, 실업계 12배, 많은 용돈 11배, 흡연형제 9배 등의 영향을 보였고, 음주에는 흡연 8배, 실업계 3배, 부진한 학교 성적, 많은 용돈, 아버지의 고학력, 어머니 음주, 교사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등에서 2배의 영향을 보였으며, 흡연과 음주는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는 흡연에 16배나 영향을 주었고, 흡연은 음주에 8배의 영향을 주어 음주의 영향이 더 큰 것을 보였다. 흡연과 음주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실업계 학생, 부진한 학교성적, 많은 용돈이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Yang et al., 2005)에서는 흡연을 할 가능성은 음주학생이 68배, 부모가 없는 경우 10배, 물질적 지지가 많은 경우 5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Chang(1995)의 흡연 및 음주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업에 대해 부적응이 커며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다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를 하게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Kim 등(2002)이 흡연자에서 비흡연자 보다 용돈이 많았음을 보고하였고, Ann, Kim과 Choi(2003)의 연구에서도 용돈이 많은 군에서 음주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용돈 지급과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Kang(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 중 아버지의 음주보다 어머니의 음주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교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학생이 흡연량과 음주횟수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Bang(2002)의 연구에서도 학교성적이 하위권의 학생의 음주 경험율이 중, 상위권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의 음주 경

험율이 98.1%로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6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술, 담배 등 기타 약물사용의 경험이 높다는 Chang(1995)의 결과와 Kim 등(2002)의 연구도 흡연군의 학교성적이 중이하에 분포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업에 대한 긴장감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흡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Ryu(2001)의 연구에서 가족별 흡연력에 따른 청소년 흡연경험 여부를 비교한 결과 형제자매가 흡연하고 있는 경우 36.1%로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27.5%가 높아 흡연은 형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고등학생 흡연은 음주 및 형제 흡연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흡연 청소년들은 앞으로 30~40년 후에 흡연으로 인한 고통, 불행, 질병, 사망 그리고 수명의 단축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불행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적이고, 사회운동 차원에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흡연 및 음주상태에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실시하였다. 일개 중소도시에 소재한 4개의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36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11.5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는 인문계 고등학생에서 정서적지지(5.43), 지도와 정보지지(5.41), 사회통합적지지(5.07), 가치지지(4.90), 양육적지지(4.74)순이었으며, 총 평점은 5.12점이었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도와 정보지지(5.14), 정서적지지(5.11), 사회통합적지지(4.80), 가치지지(4.61), 양육적지지(4.57)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평점은 4.85점이었었다. 사회적지지 5개영역 중 정서적지지($t=2.91$, $p=.004$), 사회통합적지지($t=2.69$, $p=.008$), 가치지지($t=3.25$, $p=.001$), 지도와 정보지지($t=2.49$,

- p=.013)는 인문계에서 높았다.
2. 흡연을 하는 대상자는 인문계 5명(2.7%), 실업계 18명(10.1%)이었고, 이중 금연을 위한 시도는 인문계 3명(60.0%), 실업계 14명(77.8%)이었다. 음주는 인문계 52명(28.6%), 실업계 78명(43.6%)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금주를 위한 시도는 인문계 13명(25%), 실업계 27명(34.6%)이었다. 두 집단간 음주경험율과 흡연율은 실업계에서 높았다(p=.003, p=.004).
 3. 대상자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음주(OR=15.86, p<0.01), 학교유형(OR=11.82, p<0.01), 학교 성적(OR=46.62, p<0.001), 용돈(OR=10.91, p<0.01), 형제흡연(OR=9.09, p<0.05)이었다.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흡연(OR=8.32, p<0.01), 학교유형(OR=2.53, p<0.01), 학교 성적(OR=2.35, p<0.01), 용돈(OR=2.01, p<0.05), 아버지 학력(OR=2.13, p<0.05), 어머니의 음주(OR=1.83, p<0.05), 교사와의 관계(OR=2.44, p<0.01) 등이었다.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의 흡연과 음주는 서로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학교성적, 학교유형, 용돈, 가족 구성원의 음주나 흡연행위는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고,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을 참여시킨 금연·금주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Ann, J. S., Kim H. K., & Choi, E. S. (2003).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1), 55-65.
- Bang, G. R. (2002). *The analysis on drinking patter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eungnam University of Gyeongsan, Korea.
- Bae, Y. S. (2000). *A study on the stress between preparato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support, self-efficacy, life-satisfaction and delinquent-behavior*.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Chang, Y. H. (1995).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and school life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Seoul, Korea.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enton, M., & Walters, V. (1999).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health: An analysis of the social production of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48(9), 1221-1235.
- Elder, J. P., Campbell, N. R., Litrownik, A. J., Ayala, G. X., Slymen, D. J., Parra-Medina, D., & Lovato, C. Y. (2000). Predictors of cigarette and alcohol susceptibility and use among Hispanic migrant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32(2 Pt 1), 115-123
- Kang, C. K. (2001).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n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and drinking in Inche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S. (1998).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K. N., Lee, S. S., & Hyun, T. S. (2002). Smoking status and school life attitude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buk Area, 6(1), 33-45.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3, 2004). www.kash.or.kr
- Lee, S. H. (2003). *Comparision on life patterns between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Ajou University of Suwon, Korea.
- Lee, J. H., Kang, E. S., Lee, M. H., & Lee, Y.

- E. (2001). The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on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3), 716-731.
- Lim, W. K., & Kim, S. H. (2000). Cigarette smoking habits among teenage girls living in a rural community in Korea. *Korean J Nutrition*, 33(7), 755-762.
- Ryu, H. G. (2001). The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Behaviors in Youngdo-Gu. Youngdo Development Institute, Kosin University, 2, 111-136.
- Schraedley, P. K., Gotlib, L. H., & Hayward, C. (1999).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 98-108.
- Shin, A. H. (1998).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Seoul, Korea.
- Shin, S. R., Lee, D. S., & Park, J. H. (2000). The effect of life smoking cessation program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 J Korean Acad Nurs*, 30(1), 110-121.
- Shisslak, C. M., & Crago, M. (1992). Cigarette smoking. McAnarney, r. E. et al.(Eds), *Textbook of adolescent medicine*. W. B. Saunders Company, 263-265.
- Tak, Y. R., & Lee, H. Y. (1997).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Family who has a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 *Kor J Acad Soci of Chil Health Nur*, 3(1), 42-52.
-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2). www.youth.or.kr
- Yang, K. H., Kim, Y. H., & Lee, J. R. (2005). The factors effect on smok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6(1), 40-48.

- Abstract -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m

Lee, Jeong-Ran* · Park, Boc-Nam*
Yang, Kyung-Hee**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drinking and smoking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61 high school students (182 students in 2 preparatory schools and 179 students in 2 vocational high schools) who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1.5 for Windows. **Results:** Factors affecting smoking behavior were drinking(OR=15.86, $p<0.01$), school type(OR=11.82, $p<0.01$), school record(OR=46.62, $p<0.001$), pocket money(OR=10.91, $p<0.01$) and brother's smoking(OR=9.09, $p<0.05$). Factors affecting drinking behavior were smoking(OR=8.32, $p<0.01$), school type(OR=2.53, $p<0.01$), school record(OR=2.35, $p<0.01$), pocket money(OR=2.01, $p<0.05$),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OR=2.126, $p<0.05$), mother's drinking(OR=1.83, $p<0.05$)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OR=2.44, $p<0.01$). **Conclusion:** The behaviors of drinking and smoking in high school student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School record, school type, pocket money and family member's behaviors influenced student's behavior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stimate the effect of drinking and smoking intervention programs

*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according to stu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school record, school type, pocket money management, and family members' influence.

Key words : Smoking, Drinking, Social support, High school students